

## 교회를 떠나면서

담임목사 임영수



사랑하는 교우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우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여름 뜻하지 않던 집중호우로 교우여러분들의 가정에 피해가 없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스위스 취리히에 머물면서 앞으로 시작할 새로운 사역을 위해 용 연구소와 그 외 필요한 곳을 방문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한 달은 여수 애양병원에 머물면서 스위스에서 한 달간 모아 준비한 자료들의 정리, 독서, 기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년 12월 함즐함을 목회서신에 앞으로 제가 할 새로운 사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동안 당회로부터 여러 차례 교회를 위해 장기적 목회를 요청받고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본인을 위한 정직한 길은 금년도 상반기로 저의 목회를 마감하고 빠른 기간 안에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목회의 장이 열려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 저의 생각을 알리고 8월말로 저의 목회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교우여러분들에게 직접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여러분 저는 비록 주님의교회를 떠나지만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교우여러분 역시 부족한 사람을 잊지 마시고 생각날 때 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소명, 사역의 형태는 다르지만 한 주님 안에서 한 하나님, 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한 순간 순간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여러분 조속한 기간 안에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교우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끝을 맺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함즐함울: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 제 38호(격월간)

발행일 2002년 9월 1일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우편번호 138-220

(정신여중 · 고 교내)

tel. 02-416-5181~2 (교회 사무실)

02-416-2047~8 (교역자실)

fax. 02-416-518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ord-church.or.kr>

### 차 례

- 1 목회자 칼럼 / 임영수 목사
- 2 시론 / 김태항 집사  
교회소식
- 3 농촌교회 소식 / 김수만 목사
- 4-9 특집: 수련회와 선교여행을 마치고  
임승운(소년부), 도창호(중등부),  
정현철(고등부), 공다연(청년 1부),  
이희숙 권사, 최창섭 장로
- 9-10 수필 / 인원신 집사
- 10 독후감 / 이영남 권사
- 11-12 제언 / 이진우
- 12-13 수필 / 이민우 집사
- 13 수필 / 김주봉 집사  
시 / 정해춘 안수집사
- 14 성경퍼즐  
알립니다

## 공적 자금과 하나님의 경제정책

김태환 집사(사랑 11구역)



공적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일수록 정치권에서는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엔 논란이 심할 수밖에 없다.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1997년 금융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해 왔던 공적 자금 원금은 104조원이다. 회수한 뒤 다시 투입하였거나 국책은행에 대해 출자한 자금을 포함하면 총 156조원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9%에 이르는 규모이다. 공적 자금의 투입 덕분에 금융 시스템은 안정을 되찾았고 우리 경제는 회생의 미소를 짓게 되었다. 그런데, 투입 자금 가운데 무려 87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대경실색하고 있다. 장차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부담 원금(이자 포함)에 대한 국민 한 사람의 부담액은 184만원으로 4인 가족의 경우 한 가구당 평균 736만원이며 금융기관의 부담금까지 포함시키면 한 사람이 278만원으로 한 가구당 1,112만원 규모에 이른다. 개별 가구는 해마다 추가적으로 45만원의 세금을 25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더욱이 정부가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45조원에 대한 이자분까지 감안하면 국민의 빚잔치 규모는 엄청나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는 짐작에 모두들 공감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빚더미로 포장된 경제 회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나 회수 불능 규모가 이토록 덩치 큰 눈덩이가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4년 전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할 당시에는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공언했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었다.

공적 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된 것이다. 그러면, 과정이야 어찌 되었건 간에 법에 규정된 세금은 가이사의 것이므로 우리는 흔쾌히 데나리온을 바쳐야 하는가?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핵심적인 기능이 조세정책이며, 역사적으로 한 왕조의 몰락 과정에는 조세제도의 문란이 가장 큰 요인이 되어왔다. 조세는 정부 지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즉, 조세 부담률, 부과 대상과 방식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이 달라지게 된다. 일반 국민들의 저축 및 소비 성향도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조세정책이 잘못 시행될 경우 경제 순손실이 발생하여 미시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소득 재분배의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3월 말 현재 가구당 부채가 평균 2,510만원으로 1년 사이 31%나 급증한 상태에서

서민들이 순수한 애국심으로 더 많은 데나리온을 바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세정책은 효율성과 공정성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경제정책에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다. 필요에 따라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 부담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다. 합당한 목적과 추진 과정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가루 한 움큼과 몇 방울의 기름이 몇 달치 양식으로 채워지고, 1인분 도시락이 5,000명 오찬으로 바뀔 수 있다. 가난한 과부와 어린아이의 식량 전체가 마치 100% 부담률의 조세처럼 바쳐진다. 시장 민주주의 경제에서는 부당한 징수 방법이다. 징수된 양도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얼마를 부담했으며 전부 얼마나 모아졌느냐는 양(量)의 문제가 아니라 합당한 목적과 관련된 질(質)의 문제이다. 징수된(?) 식량이 인간 구원이라는 합당한 용도에 활용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보다 더 효율적이고 공평한 정책이 가능할까?

공적 자금이 혹 잘못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앞으로 손실액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될 것이다. 우리는 가이사의 돈이라고 외면해서는 안된다. 공적 자금이 필요에 따라 올바르게 조성되고 사용되어 그 효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삭계오의 마음과 같이 책임감을 가져야만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 교회소식

1. 임영수 목사님께서서는 8월 말일 부로 담임목사직을 사임 하셨습니다.
2. 9월 한 달 동안은 김지철 목사(장신대 교수)님께서 계속 주일설교를 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을학기 구역모임이 8월 마지막 주 부터 12월 첫 주까지 있습니다. 구역성경공부 시간에는 마가복음을 공부합니다. 힘써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4. 9월 첫 주 부터 목요기도회와 주간 성경공부반이 개강합니다.

## 농촌목회 주안점

김수만 목사(경북 안동시 북후면 신전교회)

목회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명백히 주장된 것은 인간 영혼의 구원이나 사죄는 인간의 어떤 공로에 힘입어서가 아니라 오직 신의 은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영혼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목회의 근본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스위스의 신학자 E·투르나이젠은 목회를 교회 설교에 있어 특수한 형태로서 개인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복음의 기본 요체는 우리 인간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여 구제해 주신다는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죄로 상처 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감싸주며 구제하는 데 있다 근래에 와서는 사회 참여를 목회 사명의 일익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신전교회 선교 지역 상황

신전교회는 안동시 북쪽의 학가산 방송국 송신소가 있는 해발 600m에 위치하고 있다. 기후는 강원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교회 주변에는 구신전, 새마을, 마우실, 북적골, 석탑리 5개 부락으로 분산되어 있다.

주로 예천 임씨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그외에 김씨, 유씨, 손씨들이 살고 있으며 영봉사, 석탑사 사찰이 두 군데 있으며 8km내의 총가옥수는 약 130호인데 기독교인의 가정이 8호, 불교인의 가정이 70호, 유교인의 가정이 22호, 산신을 믿는 가정이 30호로 나눌 수가 있다. 물론 말로는 불교·유교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마음 끌리는 대로 무속에 참여하기도 하는 것이다.

### 신전교회의 역사

신전교회는 안동교회에서 뜨겁게 신앙생활하시던 이주한 장로가 1934. 3. 7.에 세워 웅천교회와 신전교회 겸임 사무하였으려 많은 시련과 핍박을 받아 오던 가운데 1943년 일제 탄압으로 교회의 기둥이던 임운선 집사가 보국대로 끌려가므로 교회가 폐쇄되었다.

25년간 암흑시대를 거쳐 1968. 7. 7. 다시 교회문이 열렸으며 1985. 6. 5. 총 공사비 800만 원을 들여서 대지 102평, 건평 28평의 성전 건축을 완공하여 헌당 예배를 드렸다.

그 무렵 방송국 송신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관사에서 생활할

때 30명이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몇 년 전 그 성도들이 다 떠나버리셨다.

제가 1998년 신전교회에 부임하여 왔을 때는 성도가 3명뿐이었으며 지금 성도수는 서리집사 3명, 성도 10명, 전체 예배자수는 13명이 고, 그중에 노인이 7명이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여전도회, 남선교회가 아직 없고 일년 예산은 약 300만원쯤이며, 나머지는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2002년도 4월초에 교회 도색, 새신문 설치 및 수리를 하였는데 경비가 약 350만 원이 소요되는 부족한 금액을 주님의교회 국내 선교부에서 선교비를 지원해 주셔서 해결하여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 신전교회 선교방향

개별 전도를 하러가 보면 너무 완고해서 대화를 잘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힘을 쓰다보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믿는다.

앞으로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고 이 지역에 적합한 강사를 모시려고 하며, 의료 선교도 하려고 한다.

### 봉사와 지역 사회 개발

신전 지역은 오지라 주산물은 벼·고추·참깨·붉은감자·콩·사과가 생산되고 있어 주님의교회와 직거래를 하였으면 한다.

농촌 목회는 농민을 이해하고 연세 많은 분들은 내 부모와 같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회노애락을 같이 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증가 되리라고 믿는다.

제가 신전 교회에 부임한 지도 4년이 지났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 여러 분 세상을 떠나셨다. 학생들과 젊은이는 공부와 직업 따라 떠나가고 주위의 빈집이 생기는 것을 볼 때, 인생이 왜 이리 허무하고 서글픈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간 사람은 가고 남아있는 사람에게라도 정성을 쏟아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최선을 다하여 목회를 하려고 한다. 아무쪼록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 기도 부탁 드립니다

교역자를 위시하여 성도들이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역자를 위시하여 성도들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역자를 위시하여 사모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 사모 당뇨합병증으로 오른쪽 핏줄이 터져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수술하여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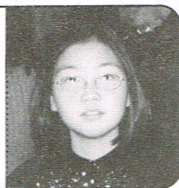
\* 주님의 작은 종 만팔 김창리가 믿음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특집: 수련회와 선교여행을 마치고

## 여름 수련회를 다녀와서

임승운(소년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소년부 여름수련회.. 아마 모두가 수련회를 많이 기대했을 것이다. 아침에 소년부실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전도사님은 '증인을 찾습니다'라는 글씨를 보여주셨다. 처음에는 증인을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나? 알쏭달쏭했다.

우리 소년부는 먼저 '대한성서공회'를 방문하여 지금까지 성경이 전해온 과정과 만들어지는 순서 등을 배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느꼈다.

2시간정도 걸쳐, 중부수련원에 도착했다. 조별모임을 갖은 후에 성경공부를 하였는데, 성경공부를 하면서 이번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신 업적 등을 배우며 조금씩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다 순교하신 여러 목사님·장로님·집사님·권사님 등을 본받아서 나도 평생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겠다는 것을 느꼈다.

저녁에 찬양콘서트를 가졌다. CCM이어서 랩도 들어가고 신나기 때문에 모두 즐거워하였다. 다른 때는 글로리엘만 울동하고 찬양을 부르고 다른 친구들은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모두 즐겁게 참여해서 정말 기뻐다.

'목표달성'이라는 프로그램을 조별로 했는데, 한 조가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행동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사람을 고문시키고 괴롭혀서 고통을 당하셨던 우리 조상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껴보기 위해 물고문도 당해보고 얼음고문도 당해보았다. 또 어두운 밤에 산을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들어보면서 평생 하나님, 예수님을 믿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또 쟁반노래방도 해보았는데, 찬양가사를 틀릴 때마다 진짜 쟁반이 위에서 떨어져서 무척 재미있었다.

다음날 1시간의 성경공부 후 우리는 그 동안 배운 것을 테스트 해보는 '성경퀴즈시간'을 가졌다. 성경퀴즈는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모두 팀 점수를 올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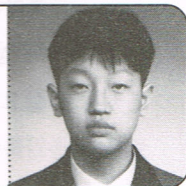
저녁식사 후, 우리는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영화를 보았다. 영화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수련회 그 마지막날, 우리는 짐을 챙겨 숙소를 떠나서 먼저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으로 갔다. 순교자기념관에 도착해서 전도사님께서 주신 과제들을 해나갔다. 과제들은 모두 순교자기념관을 돌아다니면서 푸는 것이었다. 순교자 기념관을 돌아다니며 보니 우리나라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아마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놀랐을 것이다. 주름잡아 300명은 족히 넘었을 것 같았다. 순교자 기념관에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특히 많은 순교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여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년부는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로 가서 폐회예배를 드렸다. 짧은 수련회 시간이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노력하고 공부했던 시간이 참 뜻깊었다. 이번 수련회를 바탕으로 해서 나도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것이다.

## 수련회를 다녀와서

도창호(중등부)



나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주님의교회에서의 첫 수련회였다.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었다. 나는 이때까지 교회 수련회를 간다면 주로 가까운 곳을 가곤 하였는데 이번 수련회는 우리나라 가장 남쪽 섬인 제주도까지 멀리 간다고 하니 기대와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첫째날, 나는 제주도의 여러 관광지들을 구경하면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에도 제주도에 와서 관광지들을 구경했지만 이렇게 교회수련회에서 다 같이 둘러보니 가족과 왔을 때와는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다음날, 우리들은 제주도 성안교회 학생들과 합류를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다. 같이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공동체 훈련도 하였다. 처음에 제주도 학생들과 만났을 때는 어색했는데 계속 같이 지내니 나중에는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둘째 날 한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것은 김원재 목사의 특강이었다. 처음에는 지루해서 졸았는데 나중에 귀 기울여 들어보니 매우 유익하고 좋았다. 그래서 특강의 앞부분을 듣지 않고 꾸벅꾸벅 졸기만 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자기 전에 한 활동인 천로역정을 할 때는 유혹에도 빠져들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나중에 끝나서 수련장에 도착해서 식사를 하고 휴식을 하니 매우 뿌듯하였다.

셋째날, 우리들은 해수욕장에도 가고 찬양과 예배도 드리며 다른 어느 날보다 많은 활동을 하였다. 해수욕장에 가서 오랫동안 놀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해수욕장에서 나와야 했다.

마지막 날은 사흘 동안 정든 제주도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고 또한 친하게 지낸 친구들과도 이제 헤어져야 하니 더욱 더 아쉬웠다. 그렇게 3박 4일 동안의 교회 수련회는 끝이 났다. 이번 수련회 덕분에 나는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고 많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었다. 게다가 식사 때마다 외운 성경구절들과 특강을 통해 배운 많은 성경 말씀들은 지금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즐겁게 보내고 나니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 수련회가 기대가 된다.

##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현철(고등부)



한국에서의 수련회는 정말 오랜만이였다. 내가 바다 건너로 유학을 간 지도 벌써 3년, 이번 수련회는 내가 유학을 간 뒤로 두 번째로 한국에서 맞는 것이다. 매년 방학마다 한국에 들어오지만, 그때마다 한국은 정말 많이 변해 있었고, 친구들도 많이 변해 있었다. 교회도 물론 많은 것이 변했고, 서로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오고 갔다. 이런저런 변화 속에서 낯설지만 설렘을 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는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타고 들뜬 마음으로 4박 5일의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일단 수련회 일정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보기에는 정말 더 없이 재미있어 보이는 프로그램들. 해수욕장, 게임 시간, 밤

에는 영화 상영까지. 이런 것들이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내용들이었고 그 뒤를 이어 절 방문, 진도 여행, 배타고 다도해 여행, 땅끝 마을 방문 등등, 모든 일정표 안에 일정들은 나에게 정말 많은 기대감을 주었고, 아마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도 이런 일정을 보고 많은 기대를 했을 것이었고 나름대로 노는 것에 대한 상상을 했을 것이었다.

수련회 장소에 도착한 다음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고 이어서 반 배정을 하였다. 물론 늘 그렇듯 반 배정 도중에 나오는 한숨 소리 와 반 바뀌달라는 몇몇 친구들의 모습, 포기하고 자기 반으로 가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나의 흥미를 끈 것은 이름표를 위해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었다. 물론 요즘엔 좋은 디지털 카메라도 나오고 해서 더욱 편리해졌지만, 이런 일은 정말 의외였다. 나름대로 기념이 되리란 생각에 준비한 이들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 짐을 정리한 뒤, 우리는 밖에서 가벼운 조별 게임을 가졌다. 도시 아이들답게 몇몇 아이들은 귀찮은 눈빛이었으나 게임이 막상 시작되니 활발한 몇몇 아이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잘 되었고, 끝날 때에는 모두가 아쉬워하는 눈빛이었다. 이렇게 날은 저물어 갔다. 모두들 다음날을 기대하며.

둘째 날이 되었다. 이날의 일정들은, 이번 수련회는 정말 이색적인 것임을 똑똑히 알게 해 주었다. 이제까지 내가 겪어본 그 어떤 수련회보다 느낌이 틀린 것이었다. 딱딱하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기도하고 집회를 연다며 몸부림을 치던 대부분의 과거의 수련회와는 달랐다. 버스를 타고 다니며 많은 역사적인 장소와 자연 속으로 여행을 하며 구경하기에 바빴으나 확실히 광범위하고 활동적이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여러 곳을 돈 다음 저녁 식사 때가 되어서야 돌아 왔다. 모두들 많이 지친 듯 했다. 선생님은 모두에게 밥을 먹고 강당으로 모이라고 했다. 강당에 모인 건 다름 아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으나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시작할 때까지 몰랐던 사실에 대해 많은 반성을 했다. 이어서,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좋았다.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었던 친구들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아니 과연 이 수련회를 진정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고 얻기 위해 온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한국 교회, 주님의교회는 확실히 변해 있었다. 난 영국에서 교회를 다니다. 그곳에는 적은 수이지만, 정말 믿음이 굳건하고 뚜렷한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며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곤 했다. 또 동시에 내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 해오던 내 기도 제목이 생각났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에 대한 해답을 얻진 못했다. 아무튼 이렇게, 또 다른 수련회의 하루가 저물어 갔다. 나에게 많은 생각을 안긴 채...

셋째 날은 정말 흥분하게 잠에서 깨어났다. 이날은 정말 모두가 고대하던 날임이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이날 우리는 해수욕장을 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리 배를 타고 섬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간단한 점심 식사를 한 뒤 바다로 뛰어 들어 갔다. 정말 모두 자신이 왜 여기

에 있는지 잊어버리고, 서로 어울리고 즐거워했다. 모두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알게 모르게 그가 만드신 세상을 느꼈을 것임은 분명했다. 모두 아쉬운 채로 바다를 떠나 다시 우린 강당으로 모였다. 그 날은 웬일인지 집회가 더욱 뜨거운 듯 했다. 모두들 무엇을,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었을까? 많은 기도들은 서로를 위해 오셨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 해 주셨다. 많은 친구들은 아직도 자신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쑥스러운 듯 조용히 기도했다. 그래도 그들도 분명 어떤 작은 것이라도 느꼈으리라, 적어도 누군가 날 위해 기도 해 준다는 사실을.

그 날 나는 내가 얻고자 했던 분명한 내 기도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내가 거의 1년 간 기도한 것이었다. 알고 나면 정말 간단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랫동안 헤매었던 것이다. 믿음이란 무너지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위에 더욱 튼튼하게 다시 세워진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에게 시련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이니 믿음이야말로 그 실상을 잡기 위한 열쇠라는 것. 이렇듯 이날은 많은 학생들이 많은 고민을 털어 버릴 수 있었던 날이었다.

마지막 날이 되었다. 모두들 피곤한 것 같았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는 정말 소중한 중요한 것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그 누군가는 이곳에서 느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뜻 깊은 수련회를 마감하기 위해 버스 위로 올라탔다. 올 때와는 결코 같을 수 없는, 그런 다른 모습으로...

## 끝나지 않은 비전트립

공다연(청년 1부)



청년부 22명이 7월 9일부터 18일까지 9박 10일로 태국비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방콕의 슬럼가와 현지태국인교회를 중심으로 봉사 및 선교활동을 했으며, 푸켓의 홍경환 목사님 취임예배에 참여하고 바다족 및 여러 곳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공연을 했습니다. 이 땅을 밟으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큰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체 한명 한명이 소중했으며 그곳에서 우릴 기다리던 많은 분들과의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아직도 그곳이 아련하게 남아있고 어떤 지체의 말처럼 꿈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이 제 마음속에서 잊혀질까봐 내심 불안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참으로 고마웠고 제 자신을 다독거릴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주님은 저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기도가 많이 부족했고 기도하는 훈련이 안되어 있던 저였는데 주님은 저에게 기도로서 대화하며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지체들을 섬기게 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제게 또 다른 인생의 선배이며 동료입니다. 지금은 그들과 기도제목을 나누며 저 또한 그들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고 기도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곳에서 행한 일이 확신이 서지 않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쓰셨다'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뿌듯해지곤 합니다.

선교란 조급하지 않고 밭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기 전에 단단한 돌들을 골라내는 것이라고 하신 선교사님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 이해할 듯 합니다. "선교란 잘 먹고 잘살아야 한다"는 말은 빠있는 가르침으로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착박한 선교의 현실에서 외로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선교사들의 마음을 쉽게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역경들을 이겨내며 스스로 일어설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들이 그 땅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 마임과 워십

팀 사역 외에도 우리팀은 가기 전부터 마임팀과 워십팀으로 나뉘어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임팀은 인간들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들이 씻겨나간다는 내용으로 연극을 했는데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워십은 '몸짓찬양'으로서 주님없이 하루도 살 수 없다(제목: Can't live a day)는 내용으로 선보여졌습니다. 워십과 마임팀들은 연습해왔고 기도해왔지만 무대에 설 때는 긴장이 되고 동작 하나하나를 외우기 급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대에 올라가자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평안한 마음으로 공연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푸켓 일정 속에서는 거의 공연위주였는데 사탄역을 맡은 지원이가 아파서 준형이를 사탄으로 교체하고 빈자리를 메꾸가며 급급하게 공연을 했지만, 우리의 우려와는 다르게 준형이 만의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또 한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 자기자신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전도와 영적전투

팀원들은 장터전도와 노방전도 등을 하면서 영적전투란 것을 했습니다. 그들의 문을 열기에는 어려웠고 "오직 주님"이란 말을 이해시키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과 속이 다른 태국인들이어서 우리가 다가 설 때는 웃으며 받아주지만 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만남들이 허무하기도 했

지만 분명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걸 알고있습니다.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비전트립을 갔다오고 나서 3주가 흐르고 있지만 그때의 열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도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고 여전히 주님은 저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이렇다할 정도로 자신있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건 제 마음 속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께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도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를 그리고 우리팀 22명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혹시나 제 부족한 글이 태국에서 흘렸던 우리팀들의 수고를 제대로 잘 전달하지 못하지 않았나 걱정도 됩니다. 끝나지 않은 비전트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부탁 드립니다.

## 중국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나는 어느 쪽인가

이희숙 권사(온유 7구역)



### 1. 가만가만 보니 수월치 않아요

7월 29일, 인천공항 11시 집결! 내가 아는 전부다. 누가 가는 지, 중국 어디로 가는지,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하러 가는 것인지 등 아는 것이 없다.

청년부와 함께 활동하던 지난 2년간, 청년들이 단기선교여행(Outreach)을 떠나게 되면 선교지로 떠나는 참가자나 남아서 기도로 함께하는 기도팀이나, 상당기간 금요 기도모임에 나와 선교여행 준비를 했던 경험 때문에 약간은 답답한 채로 공항에 도착했다. 반은 낮익은 얼굴, 반은 낯설은 얼굴, 다른 교회 교우 등 10여명 대부분이 정확히 어디로 무엇 하러 가는지 모르는 듯,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하신 주님의 말씀(요 3: 33)만을 믿고 빛을 따라 나선 것 같은 표정들을 하고있었다. 청년들의 열기와는 또 다른 4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장년의 은혜로운 모습이었다.

오후 한 시경 출발, 두 시 반경에 북경에 도착하니 국악을 전공했다는 조선족 안내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은밀히 말하는 첫인상, "내래 한사람 한사람 가만가만 보니끼니, 수월치 않게 생기씨요." 아무렴, 암것도 몰라도 빛을 따라나선 우리네, 세

상 눈으로 보면 수월치 않게 생기고 말고. 중화민국의 수도 북경에 내친김에 천단공원, 명나라 13황제가 잠들어 있는 13능, 사후에도 지하세계를 통치하리라 맘먹고 지은 지하 4층 지상 1층 규모의 지하 궁전, 인공위성에서 보면 인간이 이룩한 중에 유일하게 보인다는 만리장성, 골이 깊고 물이 많아 천연의 장관을 이루는 용경협의 댐, 전 세계가 민주화의 노한 물결을 목격하게 했던 천안문, 청나라 재정을 고갈시킨 서태후의 자금성과 여름궁전 이화원.

서투른 입을 단번에 다물게 하는 엄청난 규모의 이 인공 축조물들을 둘러본 후에 이구동성으로 한마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전 2-3).

### 2. 태양 빛 고운 남녘에서 내가 만난 요셉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 지 모르는 체로, 4인 1실 야간열차 칸에 실려 16시간을 달렸다. 날이 밝아오자 우리는 하루를 맞이할 기도모임을 갖기로 했다.

그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울이 아시아에 깊숙이 들어가 전도하기를 원하되, 성령이 막고 예수와 영이 허락지 않으사 트로이로 내려갔더니, 밤에 도움을 청하는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줄로 알고, 곧 헬라인 혈통의 제자 디모데 일행과 그리스로 행하는 배를 타고 가니, 그곳에 비교적 부유한 비단장사 루디아를 이미 예비해두셨다는 내용(행 16: 1-15)이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을 도구로 세계 선교화의 전초진지를 구축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잡아보게 하셨다. 그 여명에 무슨 예표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기차가 역사 안으로 서서히 들어서자 설레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열차 안까지 마중 나온 요셉을 갑작스레 만났다.

태양 빛 고운 남녘의 요셉. 그는 누구일까. 우리가 가는 선교여행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한 아들이 사회주의 체제의 이방에서 요주의 인물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만 듣고, 37도를 웃도는 펄펄 끓는 이 땅끝까지 우리는 왜 가는 것일까? 나는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유대, 북한 등과 같은 땅끝까지 선교를 펼치려는 현존하는 바울이요, 요셉이었다. 함께 온 우리 일행의 모습에서 루디아를 엿보기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와 가정교회 자립을 목적으로 요셉이 설립한 기술고등학교를 후원하려는 초교회적 후원자들인 셈이었다. 한 학생의 한달 숙식과 학비에 드는 비용이 약 5만원 정도라고 한다. 요셉은 학원선교를 통하여 세계선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학교에서 많은 디모데를 만날 수도 있었다.

요셉은 미술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나 말씀 전하고 싶은 열정에 교사직을 사직하고, 충신대원을 마쳤다. 그 후 약 10년간 중국선

교를 하면서 탈북자를 도와 제 3국을 통해 20여명을 한국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을 북한선교 사역의 개척자로 양육하려는 비전과 또 하나의 땅끝인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품게되었다. 그 관문인 회교국과 힌두교국에 파송할 선교사를 우선 양육하기로 하고, 중국에도 인문교를 선호하게 되자, 빈 공간이 많아진 기존의 기술고등학교에 더부살이 기술고등학교를 세웠다. 그 학교의 당서기관 교장의 묵인과 보호막 그들은 선교와 자립을 위한 일종의 위장 기숙기술고등학교로서는 안정맞춤이다. 작년 10월에 인가를 받아 2:1의 경쟁률로 140여명이 입학했으며, 숙식과 학비가 완전 면제다. 금년 신학기에 150여명을 더 수용할 계획이고, 한국과 서구에서 오는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의 부모와 조부모 등은 3-4대에 걸쳐 공산치하에서 신앙을 지켜온 가정교회 신자이거나 지도자들이고, 지금도 당국이 인정하는 삼자교회를 거부하는 믿음가정의 자녀들이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는 그들로 하여금 가난이라는 대물림의 질곡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선교의지를 가지고 성령이 불붙는 가운데 학업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 3. 나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그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중에 복이라는 것을 믿게되었다.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땅끝 사람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과 예수 믿다가 대물림 가난의 질곡에서 헤쳐 나올 힘을 상실한 한족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고, 그 사랑의 원천은 측은지심 또는 애통지심이다.

요셉은 요주의 인물로 영국에 피신한 적도 있고, 현재는 당뇨병으로 식이요법을 하고 있지만 애통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안위보다는, 자신이 추방되면 남은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해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채 화가로 위장하고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중에도 각처에서 알음알이로 도움을 바라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면담을 청해오곤 한다.

우리는 이 기술고등학교 외에 비참한 환경의 가정교회 신학교, 자립을 목적으로 계획된 봉제공장 터, 갈릴리 호수를 연상시키는 호숫가의 세계선교 센터 건립지 및 건축학 분교 터, 중국 전통 중의학 분교 예정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운영하게 될 식당 등을 둘러보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이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 손길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후원에 동참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모아주실 것을 믿게 되었다. 후원문의는 이경희 A 권사에게 하면 될 것이다.

동물학자들이 '마카크 원숭이'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 <방 1>에는 원숭이가 줄을 잡아당기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장치가 있고, <방 2>에는 줄을 잡아당길 때마다 원숭이에게 전기충격을 주는 장치가 있다. 두 방 사이 벽에는 고통받는 원숭이 쪽만 볼 수 있는 유리창치가 되어있다. 실험결과는 불과 13%의 원숭이만이 줄을 잡아당기고 나머지는 굶어죽는 쪽을 택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나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 캄보디아 의료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최창섭 장로(사랑 1구역)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돌아와 우리나라 시골 어디엔가 서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듯 했다. 일행이 의료활동을 펼친 캄보디아의 "축(Chuk)" 선교 센터까지는 서울 강남에서 천안 정도의 거리, 포장 도로라고는 하지만 시속 40-45Km의 속도로 3시간 거리였다.

중간 휴게소에 차가 도착하자 대여섯명의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을 팔아달라며 뒤 따른다. 6.25 동안 직후 미군들이 주둔해 있던 지역에서 지나가던 미군차가 서면 "헬로! 껌, 초코렛"하며 따라 붙던 내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아니, 캄보디아 아이들은 팔아달라고 따라 붙었으나 당시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냥 달라고 떼를 썼으니 냉정히 말하면 우리가 더 비참했는지도 모른다.

끊임없는 외침과 97년 까지 계속된 내전으로 피폐해질 때로 피폐해진 캄보디아, 소위 폴포트의 킬링필드 학살 때는 살이 찼다는 이유로, 키가 크다는 이유로, 때로는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생매장 되어 인구의 1/4을 잃어야 했던 캄보디아, 바로 그 땅 "축" 선교 센터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 의료 선교 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아침부터 먼 거리에서 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도착하자마자 현지 도우미들과 인사를 나누고 진료 준비를 마치는 대로 바로 치료에 들어갔다. 이층으로 아담하게 지어진 "축" 선교 센터와 멀리 프놈펜과 그 외 다른 지역에서 일손을 돕기 위해 참가한 도우미들의 동원. 그리고 그 도우미들과 현지인들이 이성민, 김창숙 부부 선교사에게 보내는 신뢰의 눈 빛에서 부부 선교사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읽을 수 있었다.

접수를 보며 안쓰러웠던 것은 아기 환자였다. 계속 울어대며 보채는 아이에서부터 울 힘도 없어 엄마의 팔에 늘어져 있는 아이들

을 볼 때는 나도 모르게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하나님! 하루속히 캄보디아 땅에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지금과 같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 날 오후에는 우리 선교팀을 약간 긴장시키는 일이 있었다. 내과를 찾은 20대 중환자 한 사람이 진료를 기다리다 쓰러진 것이다. 목사님과 의사들이 달려들어 기도와 응급 처치를 병행하며 그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급히 옮겼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숨을 거두고 만 것이다.

우리 의료팀에서 처방을 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는 하지만 만약 환자의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남은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당초의 계획 대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죽은 청년은 바로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중환자로 며칠 전에 의사에게 말도 없이 병원을 나가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병원 의사가 청년의 병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모님도 마침 크리스찬이어서 선교사와 현지 의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응급 처치를 해준 우리 의료팀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우리의 염려를 씻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편 숨을 거두는 환자를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를 절감해야 했다.

이를 만나질 동안 돌본 환자는 대략 이천명 정도다. 부디 바라는 것은 우리 의사들의 손길이 닿은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그 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린다. 선교의 3대 요소는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인데 앞의 두 가지는 부부 선교사의 헌신으로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으나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에 것이 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캄보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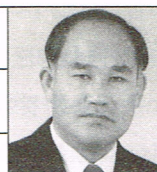
비록 가난하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에는 옥토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옥토라고 하지만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할 책임은 선교를 하는 우리에게 있다.

"세브란스"의 전신이 알렌 선교사의 광혜원에서 시작되었듯이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의료 선교도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보다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육체의 돌봄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작지만 병원을 세우고 자리를 잡을 때 까지 계속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선교팀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 수필

### 요즘 나의 가슴을 충만케 한 것들

인원신 집사(사랑 8 구역)



을 유월은 나에게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과 감동으로 벅차올라 누군가에게 이 전율의 순간을 전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사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글쓰는 일을 가장 고역스럽게 생각하는 나 자신이 스스로 글을 써서 이 감격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일 자체가 나의 흥분을 대변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

운동으로 잔뼈가 굵어 오면서 결정적일 때마다 좌절과 고배를 맛보았고, 믿을 만하다 여긴 사람에게서 속아만 살아와서 그런지 매사의 결과를 눈으로 봐야만 믿는 습성이 생겼다.

5월 31일, 월드컵이 개막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들떠서 북적거릴 때, 그저 나는 심드렁할 뿐이었다. "조별 리그 한 번 이겨보지 못 했는데, 차범근이 와서 해도 안 되었는데 이번이라고 뭐 다르겠나". 월드컵 축구 경기에 출전한 한국팀에 대한 기대도 그저 미리 짐작해서 승자 쪽에서라기보다 패자 쪽에서 생각해 왔다. 그러나 한국팀이 폴란드를 이기고 16강에 진출했을 때, 그 감격과 벅찬 희열은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젖어 있던 나를 힘차게 흔들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우승 후보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안착했을 때는 이러한 내 마음이 배가되어 온몸이 폭발하는 충격을 맛보았다. 이것밖에 못하냐고 욕하던 그 때의 심정은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신감과 벅찬 감격, 그리고 잘했다는 칭찬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런데 이런 흥분과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마치 지진 후에 몰려오는 해일처럼 내 몸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전율을 일으키는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때는 6월 19일 수요일 저녁이었다. 그날은 내가 다니는 교회의 14번째 창립 기념예배가 있었다. 찬양대원인지라 오후 6시부터 최종 찬양연습을 시작하고, 본당으로 올라가 찬양대 석에 앉았다. 기념 찬양예배를 여러 순서에 따라 은혜롭게 잘 드리고 예배당을 떠나려고 교인들이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일어나려고 하는데, 사회자의 "결혼예식이 있겠습니다"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다들 "평일 이 늦은 시각에 결혼식이라니? 아마도 귀순 용사이거나 친인척이 별로 없는 우리 교회 교인인 모양이다"라며 자리라도 지켜 축하해주자 라는 생각에 다시 자리에 앉아 결혼식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해도해도 너무 쓸쓸하고 빈티가 나기까지 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례 단상에 서시며 사회까지 함께 보시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어렵고 친지가 없는 사람이라도 식전이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고 내 나름대로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 목사님의 “신랑 신부 입장”이란 말씀에 당연히 웨딩마치가 흘러 나와야 할 텐데 너무나 조용하다. 웅당 뒷출입문에서 신랑이 씩씩하게 걸어 나오고, 그 다음 신부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수줍은 듯 그 유명한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에 나오는 웨딩마치에 발맞추어 나오길 기대했던 나는 이 전례 없는 상황에 내심 당황스러워 단상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이럴 수가! 단상 아래 옆문 쪽에서 신랑과 신부가 팔짱을 끼고 조용히 함께 들어오고 있지 아니한가. 단상까지 최단 거리라 웨딩 마치가 필요 없었던 것일까? 오후 9시가 지난 시간에 초청하지 아니한 하객에 대한 목사님의 배려인가?

이어서 신부측 부모님 소개와 신랑측 부모 소개시, 신랑 어머니는 000 여사이시고 신랑 아버지는 접니다 라고 할 때 하객들의 자리에서 웃음과 웅성거리는 약간의 소란이 일었다. 그 웅성거림은 철저히 허례 허식과 시간의 낭비까지도 줄이려는 혼주의 배려에 대한 놀라움에서 나온 것이었는지, 아니면 눈 앞에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는 충격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어서 찬송가를 부르고 난 후 주례 목사님은 한국 전통 혼례식은 해질 저녁에 이루어진다는 가벼운 당위성(?)을 주장하시며 혼인서약을 위한 문답과 혼인예를 교환과 성혼 발표를 하셨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있었는데, 부모가 그 자녀의 결혼과 앞날을 위해 하는 그 축복 기도가 이삭이 아곱에게 해주는 것과 같이 진지하고 은혜롭게 보임은 다만 나에게만 일어난 착시 현상일까?

신랑신부 친구의 축가는 남녀 젊은이가 “WITHOUT LOVE”를 듀엣으로 부른 것이 얼마나 신선하고 깨끗하게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든가? 신랑 신부와 가족이 함께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 후 행진할 순서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신랑 신부를 위한 퇴장 행진곡인 멘델스존의 오페라 ‘한여름 밤의 꿈’에 나오는 웨딩마치가 나오고 퇴장 행진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저 피로연 장소 알림과 기념촬영 안내로 식을 마치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목사님 오늘 저녁 사모님과 사돈댁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식장을 나왔으나, 웬지 모를 상쾌한 마음으로 귀가하였다.

강동의 모 교회 당회장 자제 결혼식이 그 교단 총회가 다 동원되는 거창한 행사로 유명 목사님들의 축사까지 하는 결혼식이었다고 전해 들으며 진정한 남의 귀감이 되는 결혼식, 축복 받는 깨끗한 결혼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였던 그 결혼식.

처음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 후에는 내가 보아온 혼인 예식 중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으로 각인되었다. 이

세대에 사회적 체면과 은근히 자신의 영향력을 뽐내며 사돈댁에 대한 배려 때문이라며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반인보다 더 화려한 혼례식을 거행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물론 그분들이 꼭 화려하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 형편에 따라 거행한들 잘못된 것은 없다. 그러나 화려한 경력과 이름 석자면 다 알아주시는 분께서 굳이 구도자처럼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게 가족에게까지 절제하는 삶을 철저히 지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브리서 12장 2절)’을 되뇌어 본다.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다 겨우 보이는 별 하나를 찾아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입 속으로 ‘내가 천사의 노래를 할지라도’ 하는 축가의 한 구절을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렇게도 밝고 기쁨이 넘쳐남은 아직도 10명의 의인이 우리 사회에 존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됨을 믿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 독 후 감

### 헨리 나우웬의 『춤추시는 하나님』

이영남 권사(총성 12구역)



헨리 나우웬은 정신 박약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쉬의 캐나다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에서 장애인의 극심한 고통을 보면서 아픔을 딛고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되었고, 삶의 현장에서 치유의 춤을 추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삶에서 슬픔과 고통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러한 순간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곤경 속에 모셔들일 때 우리의 삶은 슬픈 순간일지라도 기쁨과 희망을 딛고 설 수 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는 법을 배우면 고난을 통해서 배우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세상에서 외면당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을 연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마땅히 상실을 슬퍼해야 한다. 이것이 춤의 첫 스텝이다.

자신을 고난으로부터 끊으려는 시도는 결국 우리의 고난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고난과 끊는 결과를 가져온다. 상실과 상처를 벗어나는 길은 그 속에 들어가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시 30:11)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가지고 정직하게 나아 갈 때 인생을 바꾸는 일이 서서히 일어나며